

일러스트로 보여주는 헌책방만의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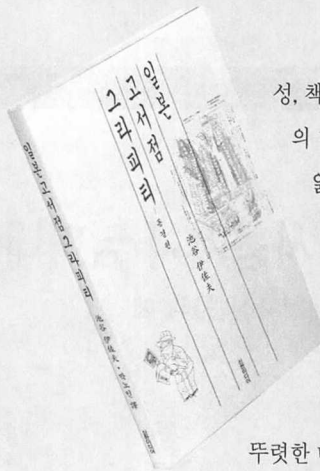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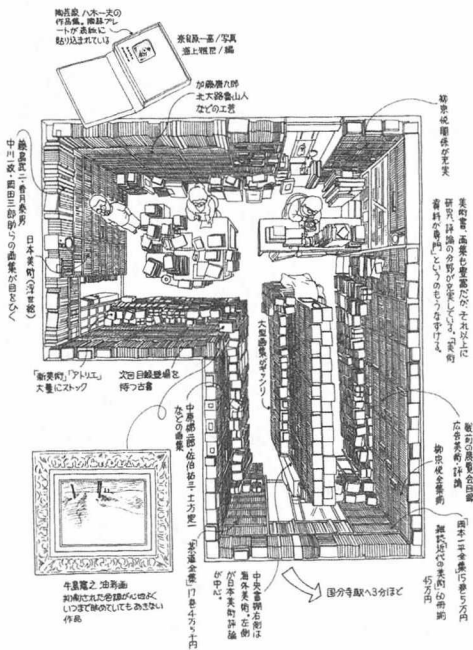
이케가야 이사오 지음, 《일본 고서점 그라피티》

헌책방은 그 나라 독서문화의 나이테다. 전세계를 여행하는 '배낭족' 만의 연대감이 있듯, 헌책방에선 '독서족' 끼리만 통하는 전유가 흐른다. 그 '독서족'의 연대감을 듬뿍 느낄 독특한 책이 나와 손길과 눈길을 단번에 묶는다.

《일본 고서점 그라피티-동경편》(박노인 옮김)은 일러스트레이터인 저자 이케가야 이사오가 고서의 매력에 이끌려 도쿄는 물론 전국의 헌책방을 20여년 동안 순찰하게 쫓아온 시각적 기록물이다. 저자는 "이틀만 책 걸표지를 보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한 서치(書痴)"다. 며칠간 헌책방에 들러 책장에 꽂힌 책들을 바라볼 수

없게 됐을 때 "가상공간이나마 위안을 삼고자" 시작한 이 일러스트 순례기는 도쿄내 진보초, 간다, 혼고, 와세다, 그리고 도심 주변 등 70여곳의 헌책방을 마치 그곳에 직접 들어가 있는 듯 세밀하고 다정하게 보여준다.

일본문학 전문서점으로 작가의 육필원고나 시간까지 갖춘 야기서점, 절판된 문고본이 건재하는 문고가와무라, 희귀한 서양고서만 죽 전시된 유쇼도서점, 오리지널 고지도 전문인 주케이도 등. 저자가 수없이 드나들며 느껴온 그 책방만의 분위기와 책들의 특



성, 책방 주인의 독특한 성격까지 소개했다. 일종의 헌책방 일러스트 지도인 셈인데, 중간중간 읽을거리로 고서점 순회방법과 순회복장, 장서가의 조건, 북커버, 글씨가 들어 있는 책에 얽힌 이야기 등 20여년 동안 책 그 자체에 끌려 만났던 술한 책과의 인연을 풀어놓은 짧은 글들도 매력적이다.

헌책방들이 건재함도 놀라운데 하나같이 뚜렷한 매력을 뽐고 있어 더욱 놀랍다. 이렇듯 애정 넘치는 그림과 글로써 가상공간의 헌책방 안내서까지 있으니, 일본의 '독서족'들이 부럽기만 하다. | 2282-4963 — 김지원 기자

신한미디어/A5신/190면/10,000원

《인쇄문화의 새로운 이해》

김창욱 지음



인쇄는 출판의 구체적인 실현이다. 그런 만큼 인쇄는 생활과 가까이 있다. 이 책은 최근 들어 기술적인 측면만 강조돼왔던 인쇄 안팎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인쇄와 문화가 한자리에 있음을 일러준다. (재)대한인쇄연구소 부장

인 저자가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팔만대장경>의 전산화, 종교 미술과 인쇄, 복사문화와 인쇄, 사라지는 활판인쇄, 날씨와 인쇄, 북한의 인쇄기술 등 인쇄를 둘러싼 사회문화 생활 기술의 문제를 짚어본다. <인쇄신문> 칼럼 모음이라 일반인들도 흥미있게 읽을 만하다. | 865-5072

학연문화사/A5신/280면/7000원

행위철학

F. 키울바흐 지음/이을상 옮김/320면/10,000원

인간의 행위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해명을 시도한 행위철학 연구서. 행위를 도덕적인 것과 비도덕적인 것으로 언표하는 전통 윤리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행위를 '실천'과 '운동'이란 측면에서 구별하고 역사적 관점에서 탐구함으로써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영국 경험론 연구

이재영 지음/288면/9,000원

대륙 합리론과 함께 근세철학의 새 장을 연 영국 경험론에 대한 연구서. 로크, 버클리, 흄, 리드의 추상 관념 이론을 현미경 삼아 영국 경험론의 내부를 속속들이 보여준다. 우주의 중심을 인간으로 끌어내린 경험론의 전통 형이상학에 대한 비판 정신 속에서 근세철학의 세계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가치론의 역사적 조명

W.H. 베르크마이스터 지음/최병환 옮김/640면/26,000원(양장)

윤리학의 분과 학문인 가치론의 주요 내용과 역사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서술한 책이다. 브렌타노·마이닝·에렌펠스·크라이하히 등 독일과 오스트리아 철학자들의 가치론을 상세하게 소개함으로써 가치라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기반 위에서 형성되는가를 명확하고 다채롭게 보여주고 있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영업부 924-6161 편집부 924-6165 팩시밀리 922-4993 천리안 phil6161